

최근 수출동향과 부진원인 분석 및 정책제언

I. 최근 수출동향과 부진원인	1
1. 최근 수출동향	1
2. 대외적 요인	2
3. 대내적 요인	4
II. 정책제언	7
1. 외환 유동성 조절 등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화	8
2.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10
3. 수출 구조 개선 및 전략산업 육성	13

확 인 : 경제연구팀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 성 :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I. 최근 수출동향 및 부진원인

1. 최근 수출동향

□ 2012년 이후 세계경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 급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2012년 1.3% 감소하고 이후 연간 2%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임.

※ 수출증가율(연간, %) : 19.0('11) → -1.3('12) → 2.1('13) → 2.3('14)

- 특히, 2015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상황임.

※ 수출증가율(월간, %) : -1.0('15.1월) → -3.3(2월) → -4.5(3월) → -8.0(4월)

- 4개월 연속 감소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초

□ (특징1) 수출 금액 기준 증가율이 수출 물량 기준보다 부진

- 수출 금액 기준의 부진은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단가의 하락을 의미

- 수출단가의 하락은 유가 등 수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경기부진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의 증가로 발생

※ 수출단가 추이 : 104('11) → 100('12) → 99('13) → 97('14) → 88('15.1~4월)

※ 원자재 가격 지수(기간평균) : 334('11) → 302('12) → 287('13) → 288('14) → 222('15.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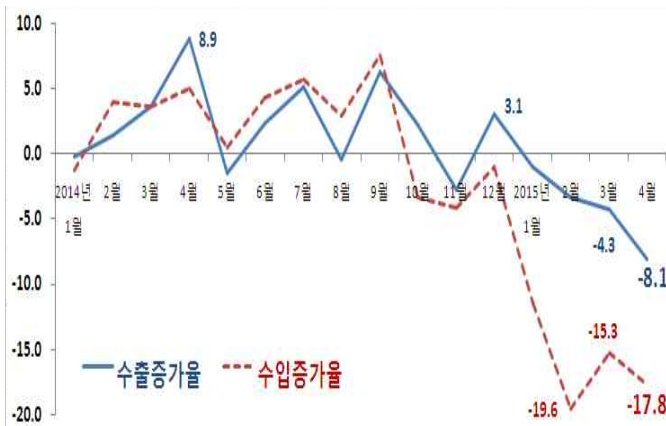
□ (특징2) 수출부진속 경상수지 흑자 확대 (불황형 흑자 구조)

- 수출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하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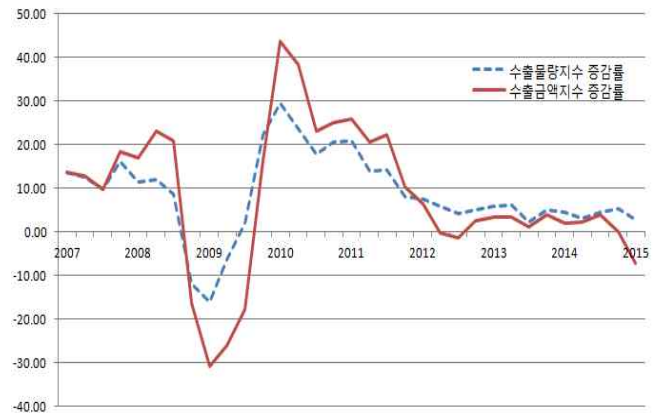
※ 경상수지(억달러) : 187('11) → 508('12) → 811('13) → 892('14) → 234('15.1/4)

-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원화가치 절상 압력으로 작용, 수출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음.

<수출입 증가율>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 증감률>



2. 대외적 수출부진 요인

□ (경기변동적 요인)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교역 위축

- 세계 경제성장은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2012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수출 부진이 지속됨

※ 세계경제 성장률(%) : 2.4('12) → 2.5('13) → 2.6('14) → 0.25('15.1/4)

- 특히,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부진이 심화됨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며 대중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유로존과 일본 경제 역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저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음
 - BRICs 국가중 브라질, 러시아 경제 역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대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급감하며 수출이 20% 이상 감소함
- 반면,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수출부진의 일차적 요인이 수출대상국 경제부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수출대상국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2.3	2.2	1.9	2.6	2.7	2.4	3.0
	수출증가율	4.1	6.0	2.6	13.0	15.0	21.9	13.4
중국	경제성장률	7.7	7.7	7.4	7.5	7.3	7.3	7.0
	수출증가율	0.1	8.6	2.8	-2.8	-1.7	0.4	-1.5
일본	경제성장률	1.8	1.6	2.4	-0.3	-1.4	-0.8	-
	수출증가율	-2.2	-10.7	-10.1	0.0	-3.5	-13.9	-22.0
유로존	경제성장률	-0.7	-0.4	1.1	0.8	0.8	0.9	1.0
	수출증가율	-11.4	-1.0	16.2	6.9	4.3	-4.1	-21.1
브라질	경제성장률	1.8	2.8	2.7	-1.2	-0.6	-0.3	-
	수출증가율	-13.0	-5.8	12.2	-16.8	-4.7	-19.6	-20.6
러시아	경제성장률	3.4	1.3	1.0	1.0	0.6	0.1	-
	수출증가율	7.7	0.5	-9.7	25.2	-14.5	-37.8	-59.3
인도	경제성장률	5.2	6.4	6.7	6.5	8.2	7.5	-
	수출증가율	-5.8	-4.6	4.1	13.9	14.3	17.6	-0.9

□ (구조적 요인) 경제성장률 대비 세계교역 증가율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자국 생산규모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교역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세계교역성장률과 세계 GDP 성장률 관계가 2012년부터는 2:1 관계가 깨지고 1:1 관계로 재편됨
- (중국)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서 중간재 수입·소비재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술발달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및 외국기업의 중국내 현지화로 중간재 수입대체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수출에 타격
- (미국) 고용 개선 등을 위해 해외생산기지 미국 이전시 혜택, 자국 제조업 경쟁 제품의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조업 지원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증가, 자국내 제조업 중심의 생산가치사슬의 수직구조 확립 중

○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도 세계의 교역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음

-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2013년)는 338건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전세계) : 201('11) → 255('12) → 338('13)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강화, 화학제품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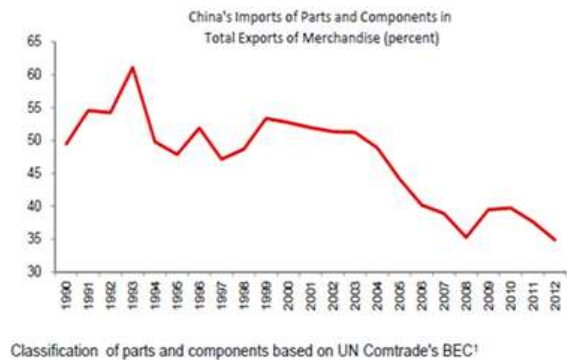
※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선진국) : 76('11) → 71('12) → 122('13)

※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개도국) : 125('11) → 184('12) → 216('13)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추이>



3. 대내적 수출부진 요인

□ 국내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 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적 요인의 대내적 요인도 작용함을 시사함

○ 2012년 이전 세계 교역증가율과 평균 8%p 수준의 차이를 보이던 수출물량 증가율이 이후에는 2.5%p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1%p 수준을 기록

□ (단기적 요인) 원화강세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

○ 우리 수출 물량 증가율 하락세는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실질실효환율 : 명목환율을 상대국과의 교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물가변동을 반

영해 산출하는 환율로 클수록 통화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함

- 원화가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 엔화가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원화실효환율(기간평균, 2010년 100기준) :

99.9('11) → 99.6('12) → 104.6('13) → 110.7('14) → 113.8('15.1/4)

- 특히, 최근 엔저현상 심화로 對일본 수출 저하는 물론, 일본과 경합이 높은 상품의 수출 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아 원/엔의 실질실효환율 차이가 늘어나면 우리 수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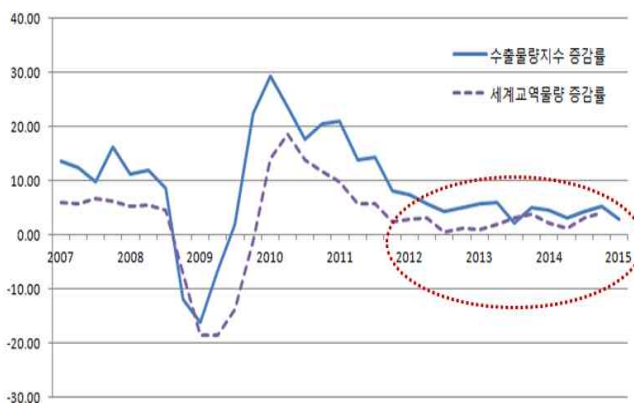
* 수출경합도 :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

- 한일 수출경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0.5를 넘어선 상황(양국의 수출품 구성이 50% 이상 유사)

※ 한일 수출경합도 : 0.446('08) → 0.467('10) → 0.475('11) → 0.481('12) → 0.501('13)

※ 주요품목별 경합도 : 자동차(0.707), 반도체(0.584), 선박(0.527), 통신기기(0.499)

<한국 수출물량 및 세계교역물량 증감률>



<원화 및 엔화 가치와 수출물량>



□ (장기적 요인) 중국 등 개도국 추격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 산업이 성숙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진입 등으로 경쟁력 및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IT, 기계, 철강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RCA*지수가 한국의 경우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RCA지수 : 현시비교우위지수로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상품경쟁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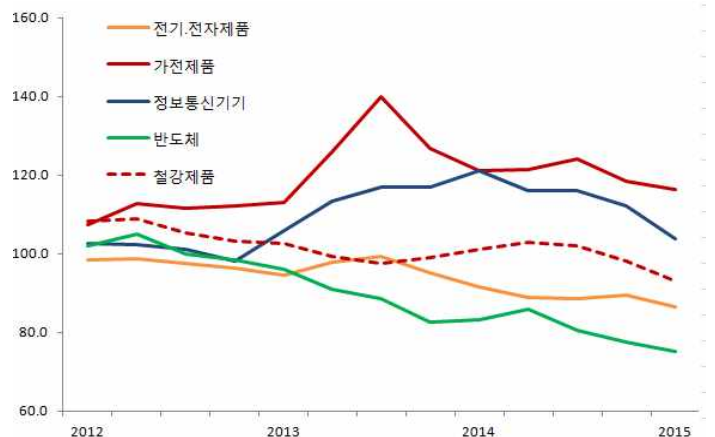
	2006		2009		2012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석유화학	0.47	0.14	0.51	0.13	0.85	0.12
철강	1.61	0.97	1.98	0.52	2.19	0.86
철강제품	1.07	1.63	1.23	1.56	1.47	1.77
기계	1.01	1.49	0.92	1.70	1.00	1.71
IT	2.03	1.82	1.93	1.96	2.01	2.20
자동차	1.57	0.28	1.47	0.34	1.83	0.38
조선	9.31	1.18	10.13	2.04	8.75	2.40
정밀기기	1.93	1.14	2.62	1.06	2.43	1.25

- 이러한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쟁심화는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늦춰지면서 수출 단가 하락 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 수출단가와 비교할 때, 한국 수출단가와 세계 수출단가간 차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 이후에는 약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확대
- 특히,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전자, 반도체, 가전 등 주력 상품의 단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수출단가의 하락은 수출물량의 축소와 함께 수출채산성을 악화 및 수출부진을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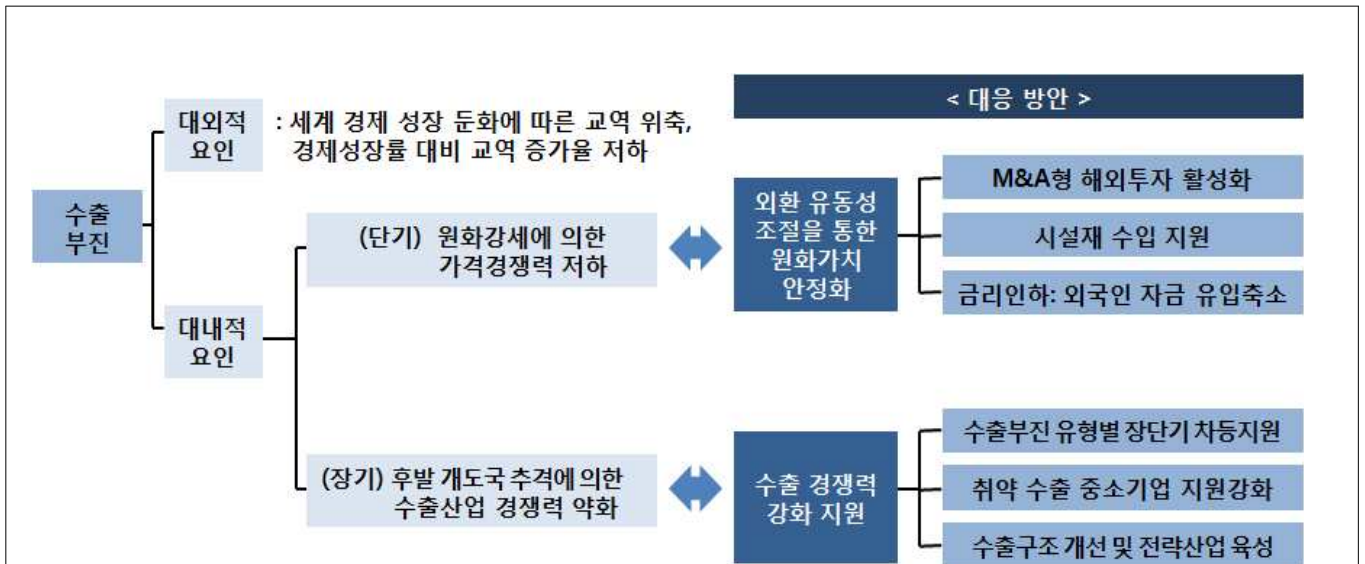
<세계수출단가와 한국수출단가>



<수출 주력 품목 단가>



II. 정책제언 (대응방안)



<주요 수출품목 수출 부진 유형>

<지원 방향>

품목명	수출 부진 원인	유형
석유 화학 석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 하락, 대규모 생산설비 정기보수로 수출 물량 감소 * 석유화학시설 정기보수 :LG(3-4월), 여천NCC(5-6월), 삼성(4-5월) 	원자재 가격하락 연동형
자동차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저 및 유로화 환율 하락, 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 지속 	경기침체 · 환율 영향형
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및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유로화 가치 하락 영향, 원료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 	경기침체 · 공급 과잉형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설비 과잉투자로 공급과잉 	경기침체 · 공급 과잉형
무선 통신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등 로컬업체 성장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 애플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감소세 지속 	경쟁심화 · 수출단 가 하락형
디스 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생산 본격화, 중국 경쟁 심화로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경쟁심화 · 수출단 가 하락형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일본과 경쟁 심화로 해외 생산 물량 확대 및 현지 부품조달 비중 확대, 단가하락 	경쟁심화 · 수출단 가 하락형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

운전자금
등
단기지원

고부가 제
품
전환 위한
장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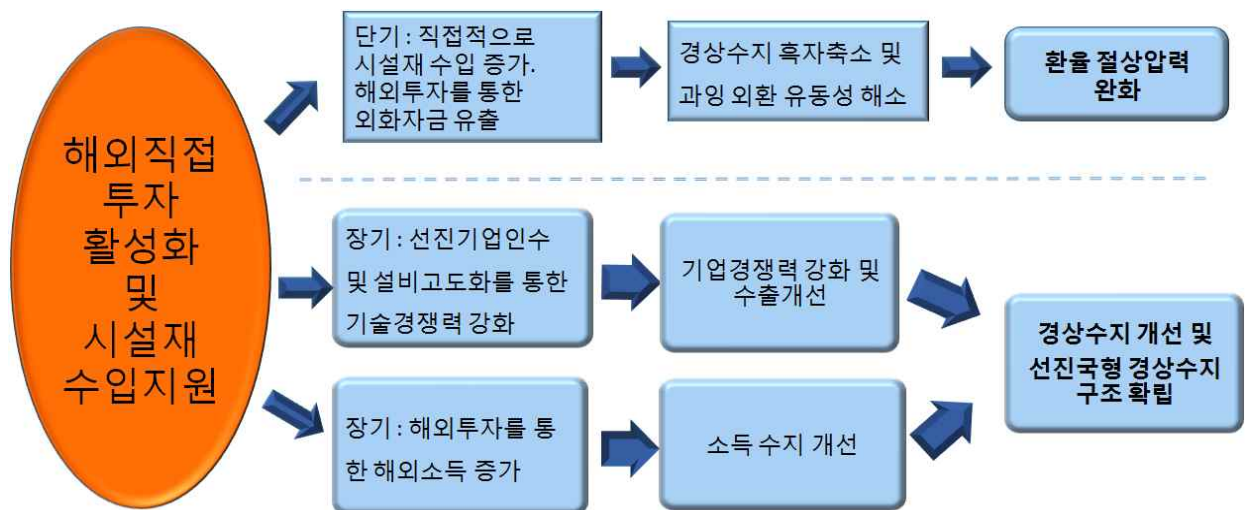
1. 외환 유동성 조절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화

□ M&A형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지원

- 기업들의 M&A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 과잉 외환유동성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
 - 해외에 직접 공장 및 사업장을 이전·설치하는 그린필드형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업 M&A형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갖추지 못한 해외사업 역량 및 기술 기반 확대에 주력
- 과거 일본 기업들은 엔고 시기에 글로벌 M&A 전략 추진을 통해 해외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해 이후 도약 발판 마련
 - ※ 일본 M&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누적, 억달러) : 135('90)→269('95)→380('00)→574('05)
 - 일본 통신업계 제3위인 소프트뱅크는 영국 보다폰 일본법인,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 미국 휴대폰 판매사 Brightstar 매수 등을 통해 해외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통신·방송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고속 성장
 - 일본전산은 싱가포르 HDD업체인 브릴리언트, 프랑스 발레오사의 소형모터사업부문 등의 매수를 거듭하면서 기술력 강화·사업범위 확대
 - 일본정부도 기업의 해외 M&A 투자지원을 위해 “엔고 메리트의 철저한 활용” 정책을 시행함
-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수출 이외의 해외소득 증가를 꾀함으로써 소득 수지도 개선해 상품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는 선진국형 경상수지 구조로 전환 유도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경상수지에서 소득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경기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임
 - ※ 미국 경상수지 및 소득수지(2014년 기준) : △4,106억달러/2,179억달러
 - ※ 일본 경상수지 및 소득수지(2014년 기준) : 2조6,458억엔/18조1,204억엔

□ 시설재 수입지원을 통한 설비투자 유도 및 경쟁력 강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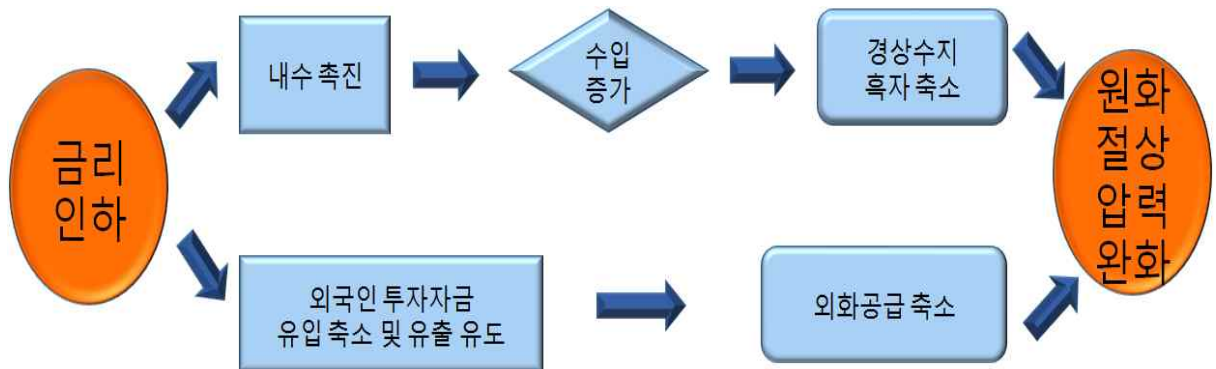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 과잉 외환 유동성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자본재·시설재 등의 수입을 지원해 국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추구
 - 또한 시설재 수입 지원을 통한 설비투자의 확대는 파생적으로 경기 부양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도 유도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엔고가 장기화된 1990년대에는 단순한 생산 합리화나 원가절감 대신 차별화된 지속적인 생산기술 및 장비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엔고 시대 극복에 성공
 - 엔고 시대 초기에는 원가절감 등에 주력하며 수출가격 인상 자제에 힘썼지만, 이후 엔고가 20년 이상 지속되자 설비고도화,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개선



□ 금리인하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축소 유도 및 내수 부양

- 금리인하를 통한 선진국과의 금리차 축소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축소 및 유출을 유도하여 원화가치의 정상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일본과 유로존 경제가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조절을 통한 통화가치 약세유도가 필요한 시점임

- 미국의 경우 하반기중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국의 금리차는 더욱 축소되어 금리인하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폭을 축소시키고 '불황형 흑자'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음



2.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수출 부진 원인 유형별 산업 분류

- (원자재 가격하락 연동형) 최근 수출감소를 견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 생산설비 정기보수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어서 하반기 이후 수출회복세 전망
- (경쟁심화형)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최근 중국 제품들의 추격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 물량 및 단가 하락 심화
 -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Delta 1.3(^{\circ}15.1) \rightarrow \Delta 6.8(2) \rightarrow \Delta 12.4(3) \rightarrow \Delta 5.2(4)$
 - ※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 $\Delta 4.5(^{\circ}15.1) \rightarrow \Delta 13.6(2) \rightarrow \Delta 14.4(3) \rightarrow \Delta 8.4(4)$
 - ※ 가전 수출증가율(%): $\Delta 10.7(^{\circ}15.1) \rightarrow \Delta 16.0(2) \rightarrow \Delta 13.3(3) \rightarrow \Delta 24.3(4)$

<한·중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유무선 통신 기기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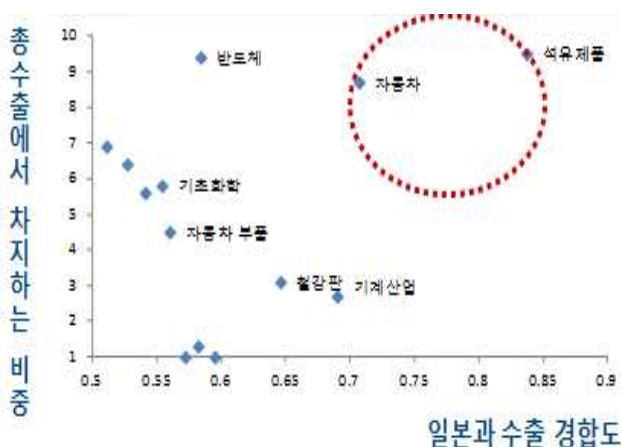
- (경기침체·환율영향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러시아, 중남미,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엔화 및 유로화 가치 하락이 지속으로 수출 물량 감소

※ 자동차 수출증가율(%): $\Delta 4.7(15.1) \rightarrow \Delta 16.0(2) \rightarrow \Delta 6.8(3) \rightarrow \Delta 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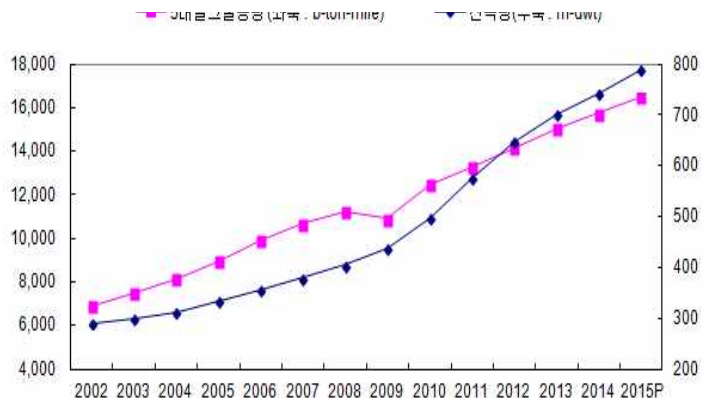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Delta 3.5(15.1) \rightarrow \Delta 12.2(2) \rightarrow 1.3(3) \rightarrow \Delta 5.6(4)$

- (경기침체·공급과잉형) 선박, 철강 등은 중국·러시아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속에 중국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늘어나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형 제품 전환이 필요

<주요산업 일본 경합도와 수출 비중>



<선박 물동량 및 선복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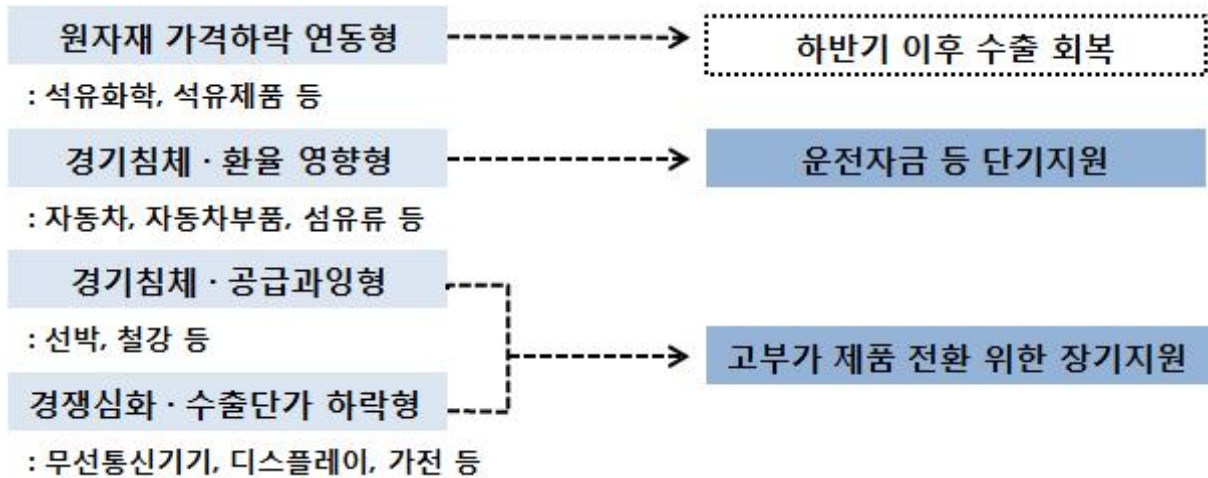
<주요 수출품목 수출 부진 유형>

품목명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 부진 원인	유형
	'14.4	'15.4		
석유 화학	42.9 (3.8)	34.2 (△20.1)	○ 원유가 하락, 대규모 생산설비 정기보수로 수출 물량 감소 * 석유화학시설 정기보수 :LG(3-4월), 여천NCC(5-6월), 삼성(4-5월)	원자재 가격하락 연동형
석유 제품	44.0 (18.1)	24.9 (△43.3)		
무선 통신기기	27.4 (14.3)	26.0 (△5.2)	○ 중국 등 로컬업체 성장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 애플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감소세 지속	경쟁심화 · 수출단가 하락형
디스 플레이	21.8 (△11.9)	20.0 (△8.4)	○ 해외생산 본격화, 중국 경쟁 심화로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가전	14.2 (16.1)	10.7 (△24.3)	○ 중국, 일본과 경쟁 심화로 해외 생산 물량 확대 및 현지 부품조달 비중 확대, 단가하락	
자동차	47.3 (16.7)	43.6 (△8.0)	○ 엔저 및 유로화 환율 하락, 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 지속	경기침체 · 환율 영향형
자동차 부품	24.3 (11.0)	23.0 (△5.6)		
섬유류	15.1 (5.3)	14.1 (△6.3)	○ 중국 및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유로화 가치 하락 영향, 원료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	
선박	31.1 (18.8)	28.6 (△7.9)	○ 중국 생산량 증대로 공급과잉	경기침체 · 공급 과잉형
철강	31.3 (17.1)	29.7 (△5.2)	○ 중국 및 글로벌 경기침체, 공급과잉	

□ 유형별 산업 지원 방안

- 경기침체형(섬유 등) 및 환율영향형(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산업의 경우 유동성 압력 위기 등을 경감하기 위한 운전자금 등 단기적 지원 필요
- 경쟁심화형 산업(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및 공급과잉형 산업(선박, 철강)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위한 R&D자금 등 제품 본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지원 필요

<수출부진 유형별 산업 지원 방향>



□ 취약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은 환헛지 등에 대한 대비 방안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수출 여건이 악화시 방어 능력이 취약해 유동성 위기에 쉽게 노출
 - ※ 2015년 업무계획 수립 기준 원/100엔 환율: 대기업 985.7원, 중소기업 968.7원
 - ※ “환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없음” 응답 비율: 대기업 12.7%, 중소기업 21.7% (2015.3,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 특히 최근 수출 부진을 기록하고 있는 IT(17%), 자동차(34%) 산업의 매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24%이고, 수출 중소기업의 39%는 국내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을 하고 있어 동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파급 심화 우려
- 일본의 경우에도 엔고시기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합병을 지원하는 한편 하청대금지불지연 방지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통해 하청업계 보호 강화
 - 운전자금 성격의 세이프티넷 대출 금리를 최대 0.5% 인하하고, 설비자금 대출 금리를 0.5%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

3. 수출 구조 개선 및 전략산업 육성

□ 수출지역·업종 다변화 및 품목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구조 개선

-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해당 산업 및 지역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총수출액에 대한 영향도가 높

은 상황

※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14년, %) :

한국(58.6%), 일본(36.5%), 미국(31.5%), 중국(28%), EU(24.4%)

※ 최대 수출국가 의존도 ('14년, %) :

한국(중국, 25.4%), 미국(캐나다, 19.2%), 일본(미국, 18.7%), 중국(미국, 16.9%)

- 특정 산업·지역의 수출 여건 변화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는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업종 및 지역 다변화 추구 필요
-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반도체·정밀기기 등 특정 품목에만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진 반면, 일반기계·화학제품·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지속
- 독일, 일본, 미국 등은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낮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 보유한 반면, 우리의 경우 품목별 편차 존재

<주요국 산업별 수출 고부가가치화 비교>

	독일	일본	미국	한국	한일격차
제조업	108.5	111.7	103.0	106.9	4.8
정밀기기	98.3	95.1	91.7	100.4	-5.3
일반기계	101.1	104.4	97.7	101.6	2.8
반도체/전자부품	92.3	100.4	101.0	107.0	-6.6
영상음향통신기기	100.8	103.0	103.9	100.1	2.9
화학제품	103.3	104.9	101.4	96.5	8.4
석유 및 석탄	103.6	106.2	105.6	105.3	0.9
철강	106.9	107.1	109.2	108.6	-1.5
자동차	104.3	101.6	96.1	97.7	3.9

주: 2013년 기준, 2010년 제조업 전체 평균=100

- 일본의 경우 2차 엔고시기에 환율에 흔들리지 않는 비가격 경쟁력을 갖춘 '온리원 기업' 육성을 위해 일본의 강점인 중소기업 금속 가공 분야의 모노즈쿠리형 기술력 고도화 등을 지원
- 1차 엔고 시기(1984~1988)의 일본 기업 고부가가치율(=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은 77.6에서 75.4로 하락했으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 2차 엔고시기(1990~1995)를 겪은 뒤에는 고부가가치율이 78.6에

서 92.7까지 상승

□ 차세대 전략 수출 산업 육성

- 차세대 유망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 에코쉽,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차세대 고부가 제품 및 첨단 소재형 제품의 개발·수출화 확대

※ 미래성장동력 9대산업 및 4대 기반산업 (2014, 6. 경제장관회의) :

- 9대 산업 -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지능형 로봇,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실감형 콘텐츠, ⑦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⑧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⑨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 ① 지능형 반도체, ② 융복합 소재, ③ 지능형 사물인터넷, ④ 빅데이터

- 9대 산업 및 4대 기반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지정은 있으나 수출화 지원은 미흡한 상황

- 제조업 수출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수출당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수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 산업 구조 개선

※ 취업유발인원('12, 10억원당): 전산업(13.2명), 공산품(8.5명), 서비스(18.0명)

※ 부가가치유발계수('12): 전산업(0.662), 공산품(0.537), 서비스(0.795)